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문수·한동훈’ 마지막 경선 치른다

내달 3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
홍준표 은퇴…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안철수 “최종후보 도와 정권교체 막을 것”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9일 안철수·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한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 과반을 넘게 득표한 자가 없어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탄핵 반대파로 2대2 구도 치러졌다. 2차 경선 결과, 탄핵 찬성·반대파 후보가 1명씩 탈락 하면서 3차 경선에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3차 경선 진출 소감에서 “한동훈 후보께서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래가 창창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후보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하실 때 여러차례 뵈는데,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속의 말을 감추지 못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오늘로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졸업하게 돼서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가 누가 되든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를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오늘 선대위 공식출범

‘경제·통합’ 중점 중도층 공략

“분열·대결보다는 힘 모아 통합”
윤여준 전 장관·강금실 변호사 합류
비명계·김상욱·권오을 등과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며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는 29일 별다른 일정이나 공약 발표 없이 선대위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선대위 인선의 원칙으로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언급한만큼, 선대위 인선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경제에 강점이 있는 인사와 통합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언급하며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미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해결해야 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선 “뭐니 뭐니 해도 국가 운영을 책임진 분은 경제가 최우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까 다행이라

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는 강금실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이외에도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고 비명계인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전 의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통합 선대위를 위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합류 제안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 역할을 논의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평당원으로라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주어진든 주어지지 않은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대위에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후보와의 비공개 독대 때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 후보가)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고 그때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중도보수 공략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윙 역할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상욱 국민 의힘 의원에게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동참하실 수 있다고 저희에 의사 타진이 온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인 권오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구미하이테크 밸리 물류용지 분양공고

1. 분양대상 토지

사업지구	구 분	토지면적(㎡)	분양예정금액(원)	신청예약금(원)	공급방법
구미하이테크밸리	물류용지	15,271	3,417,115,000	171,000,000	추첨
		15,273	3,417,518,000	171,000,000	
		59,728	13,364,745,000	669,000,000	

2. 신청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분양(입주)공고	‘ 25.04.30.(수) ~ 05.14.(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actoryon.go.kr (고객지원/분양·처분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고객마당/입찰/임대)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	kwater.or.kr/land
입주자격 확인	신청 전 개별 확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수출대로 127)	입주자격 확인
분양(입주) 신청	‘ 25.05.07.(수) 10:00 ~ 05.14.(수) 17:00 (영업일에 한함)		신청금 (분양금액의 5%이상) ※붙임1: 토지목록/계좌 참고
분양대상자 선정(추첨)	05.15.(목)~05.16.(금) (추첨일 별도안내)		경합 시 추첨
분양(입주) 계약체결	05.21(수)~05.22.(목) (영업일에 한함)		계약금(분양금액의 10%) ※붙임1: 토지목록/계좌 참고

3. 분양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대상업종)에 적합한 자

4. 입주대상 업종

(1) 참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업종
(2) 화물터미널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913 업종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입주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kwater.or.kr/land)을 참고해주시시오.

5. 분양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입지혁신팀(070-8895-7733)/K-water 구미사업단 판매보상부(054-479-4216.8)

2025년 4월 30일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최상목 “대선 후 2차 추경, 신용평가사 우려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취약계층 중심 편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6·3 조기대선’ 후 2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와 관련해 묻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째날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제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사업과 규모가 모두 상황에 맞지 않다고 최소 1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입장을 내놴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SKT를 사용한다며 SKT를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은 손을 들고라고 했다. 정 의원의 물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본인도 SKT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유심 불량량 부족 사태 따른 시민의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 물량을 모두 확보해도 600만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약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동통신사가 전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홍 기자